

청년 위한 금융·진로·심리코칭

덕진예방접종센터 14일 개소 앞두고 모의훈련 실시

전주시, 15일~12월 7일까지 만 18~39세 청년 대상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최근 2030세대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빚투(빚내서 투자)'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기초 금융지식을 안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진로 설계를 돕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역 내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진로·심리코칭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총 15회로 구성됐다. 6월에는 3회(15·22·29일)에 걸쳐, 7월부터는 격주로 화요일에 진행된다.

먼저 오는 15일에는 정한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전략'을 주제로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의 생태계와 관련된 진로코칭이 진행된다.

이어 22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교수가 '말과 글이 순환하는 삶'을 주제로 말하기와 글쓰기 역량을 높여준다. 오는 29일에는 최태석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전무와 함께 연구구조 및 자신의 생애주기별 적합한 투자방법에 대한 금융코칭이 추진된다.

9월과 11월에는 주식 분야 전문가인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장과 준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코칭을 받는 시간도 마련돼 최근 단기 수익을 좇아 위험자산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성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코칭도 지원된다.

각 코칭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전주청년은라인플랫폼(youth.jonju.go.kr)에서 일정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교육이 끝난 후 추가 상담 등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유관기관 컨설팅도 지원한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로, 심리 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진로 분야는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문제해결을 돕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청년은 우리 도시의 경쟁력으로, 청년에 투자해야 지역의 미래가 살아난다"며 "청년들의 취·창업을 도울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강연진과 함께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자신감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다문화가정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 위한 교육

전주시는 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강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와 상담인력, 통·번역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도를 높이고 상담 전문성을 확보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교육에는 양연자 LH전북본부 마이홈센터 과장과 백창민 LH전북본부 마이홈센터 금융상담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택유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제작된 알기 쉬운 주거복지 서비스 안내서로 전주시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소개됐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을 통해 한국어 및 한글 사용이 어려워 주거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적합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상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해피하우스 주택리폼 교육으로 집수리 역량 높인다

전주시가 시민 스스로 간단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시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팔복동 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2021 해피하우스 상반기 주택리폼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목공 DIY ▲건축설비 ▲정리수납 ▲도배·도색 등 4개 분야로 나뉘어져 강좌별로 15명씩, 총 60

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자신의 집을 간단히 수리·수선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시는 이 교육을 통해 단독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역량을 높여 주거환경 개선에 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백신 준비·이상반응 환자 이송까지 전 과정 점검

전주시가 덕진예방접종센터의 본격적인 접종 개시를 앞두고 7일 백신 준비부터 이상반응 환자의 이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 덕진소방서(서장 윤병현),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은 이날

우아동 덕진보건소에서 덕진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의훈련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센터에 방문해 접종을 한 다음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상황을 가정해 ▲백신 준비 ▲접수 및 대기 ▲예진 및 접종 ▲전산등록 ▲이상반응 모니터링 ▲응급상황 및 처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단계별 주의사항을 되짚어보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덕진예방접종센터는 오는 14일부터 기존 사회 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1일 최대 접종인원은 1,600명 정도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일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 소방,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한 접종센터 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덕진예방접종센터의 본격적인 개소를 앞두고 각별한 대비와 민간의 훈련을 진행해 있다"면서 "전문가 및 협력기관과 힘을 합쳐 빠르고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현),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은 7일 우아동 덕진보건소에서 덕진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주시, '여름철 재해종합대책' 가동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안전시설 강화 등 자연재해·안전사고 피해예방 만전

전주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특히 남부시장 둔치주차장에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송천동 오송제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 사전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24시간 재난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재해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신속한 재난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예비 특보단계에서부터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해 기상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재난 진행방향을 예측해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등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하천 내 토사퇴적 등 우수 저장물을 제거하고 절개지를 중심으로 토사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06곳을 대상으로 산사

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면서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후시 모를 산사태 발생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방용 양수기 220대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준비를 완료했고, 12곳의 배수펌프장이 정상 가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특히 장마철마다 지속돼왔던 남부시장 둔치주차장의 차량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 발생 시 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즉시 보낼 수 있는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 시스템'도 이달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세월교(하가휴먼빌~여울초 사이)에는 하천수위감지 CCTV와 원격 통행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송천동 오송제에는 배수로를 정비해 범람 피해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횡단보도 근처와 교통신호 등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지난해보다 40개소 늘어난 총 216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내 주요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살수차를 운영하는 '도로 쿨서비스'도 추진

한다. 농촌마을의 경우 폭염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해 열사병 등 열질환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수시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등 재난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전주지역에는 1일 최대강수량 217.5mm, 1시간 최대강수량 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 도심지 하천 주변 16개 언더패스(아래차도)와 3개 지하차도의 차량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